이로에 암꿩 향로

암꿩을 형상화한 이 도자기 향로는 17 세기 유명한 도예가 노노무라 닌세이의 작품입니다. 같은 닌세이의 작품인 '이로에 꿩 향로'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우와에쓰케(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채색하여 가마에 넣고 저온으로 구워 내는 것) 기법과 정교한 조형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을 바탕으로 닌세이는 교야키의 대성자로서 명성을 확립했습니다. 교토에서 탄생한 교야키는 상급 무사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에쓰케(도자기에 그림·무늬를 그려 다시 굽는 것) 도자기입니다.

닌세이의 우아한 작품들은 다도 도구로써 크게 사랑받았습니다. 실제로 닌세이의 꿩 향로와 암꿩 향로를 비롯해 현존하는 초기 교야키 작품의 대부분이 다기나 차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회(차모임)에서는 주최자인 주인이 계절에 맞는 꽃 등의 장식물로 다실의 도코노마를 꾸밉니다. 전통적으로 꿩은 봄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향로는 봄 다회에서 계절감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수꿩 향로와 비교했을 때, 이 향로의 암꿩은 차분한 느낌의 색조입니다. 수꿩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화려한 깃털 색으로 진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흙빛을 띤 암컷의 깃털과 무늬는 천적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닌세이는 은 성분의 안료를 굽는 과정에서 산화시켜 검정과 갈색 농담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는데, 이로써 암꿩의 차분한 깃털 색을 훌륭하게 재현했습니다. 이에 반해 머리부분에서는 눈 주변의 육수(일부 조류의 수컷에서 두부 경측에 늘어져 있는 육질의 융기)에 붉은색과 금색이 사용되었고 눈꺼풀에는 살짝 파란색이 더해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닌세이의 색채 표현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닌세이는 암꿩의 후두부 부분에 우각(새의 머리에 뿔 모양으로 솟은 털)처럼 보이는 도가머리(새의 머리에 길고 더부룩하게 난 털)를 추가했습니다. 육수나 도가머리는 수꿩에게만 있지만, 닌세이가 이를 암꿩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설은 수꿩을 모델로 삼았던 닌세이가 수컷과 암컷의 깃털 색상이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암컷의 머리 형태가 다르다는 점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암꿩 향로의 꿩이 실제로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며, 밤의 어둠 속에 있는 꿩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점토는 굽는 과정에서 수축하거나 형태가 뒤틀리기 때문에 복잡한 조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암꿩 향로의 꼬리는 위로 45° 각도로 힘있게 뻗어 있고, 뒤를 돌아보는 머리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깃털을 다듬는 듯한 모습의 조형에서 닌세이의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꿩 한 쌍을 그린 동아시아의 그림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의 암컷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로 닌세이는 당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공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닌세이는 도자기 작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인 '도인'을 작품에 새기기 시작한 도공이기도 합니다. 이 관습은 도예가가 이름 없는 노동자에서 이름을 가진 예술가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암꿩 향로에서는 바닥면 앞쪽 가슴 부근에서 닌세이의 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꿩 향로는 1965 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에서는 이로에 꿩 향로와 함께 상설 전시되고 있습니다.